

지휘자소개



상임지휘자 **손 웅**

원광대학교 국악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지휘 졸업
원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제38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수상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공연 '춘향'
한불수교100주년기념 공연 프랑스 낭트
여수MBC 창사 특집 '화전놀이' 연출



객원지휘자 **정윤해**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동대학원 졸업
Italy trillo music school 지휘과 졸업
신라문화재단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수상
Scuola di Musica IL TRILLO Orchestra 객원 지휘
우크라이나 르보브 주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광주공연 객원 지휘
우크라이나 체르노우치 필하모닉 객원 지휘
현, 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
오케스트라아리랑 부지휘자

협연



장세남 **이영훈**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로얄심포니 오케스트라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250여회 협연
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출강
한국개량악기협회 회장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여수시립국악단

여수시립국악단은 2000년 7월 1일, 여수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창단 되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수시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국가 문화브랜드를 탄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수지방의 전통예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사명감으로 21세기에 맞는 전통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시립국악단은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악관현악, 창악, 무용, 타악 등 네가지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歌, 舞, 樂이 일체가 되는 전통예술을 추구하고 있다. 단원 모두는 연중 2회의 정기연주회와 여수뿐 아니라 타 지역 및 해외 연주 등을 포함한 연중 100여회의 공연 등으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단 장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부단장 정재호 (여수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지휘자 손웅

단무장 권인홍

기획홍보 임서현

대금 노석기(수석), 광미선, 신경호, 이성택

피리 신세미, 홍봉기, 김주영

해금 박선희, 조아람

가야금 정현정(수석), 이셋별, 이세련

거문고 박보경

아쟁 김경하, 노사선, 김소영

신디 고은애

타악 원대근(수석), 김계진, 박재철, 최미순, 박정원, 김아라, 이인국, 채종옥

무용 박은애(수석), 김해리, 천재연, 이슬, 김수희, 이현희, 김운현, 김나라

창악 최재일(수석), 김미옥, 이시원, 신지현, 김민정, 박윤희, 김경희, 전현정, 송다빈



상심금여수

2024

여수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2024. 07. 19.(금) 7:00pm

웅천천수공원



상임지휘자
손 웅



객원지휘자
정 윤 해



협연자
이 영 훈



주최



여수시

주관



여수시립국악단

공연순서

1. 장새납 협주곡 '열풍'

연주 여주시립국악단

객원지휘 정윤해 / 작곡 최영덕 정상진 / 장새납 이영훈

장새납의 명수 금강산가극단 공훈배우 최영덕과 공훈예술가 정상진이 2005년 창작한 작품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통일의 염원을 담은 뜨거운 바람이 조선반도를 휘몰아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세계 유일의 북측 개량악기, 장새납의 특징을 잘 나타낸 곡으로써 풍부한 음색과 기교의 화려함을 맛 볼 수 있는 작품이다.

2. 관현악 '축제 3악장'

연주 여주시립국악단

객원지휘 정윤해 / 작곡 이준호

'축제'는 작곡가 이준호가 1997년에 발표한 관현악곡으로, 전통적인 축제의 놀이와 분위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곡은 빠르고 신명나는 가락과 함께 흥겨운 장단이 특징인데, 이는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음악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준호는 이 곡에서 축제의 다채로운 모습을 다양한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조화로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별달거리 장단은 그의 음악적 재치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부분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축제의 환희와 재미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3. 판소리 '심청가'

소리 최재일 / 교수 송다빈

판소리 다섯 마당 중의 하나인 심청가 가운데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은 심청을 실은 배가 인당수에 도착한 장면에서 시작하여 심청이 물에 뛰어드는 장면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거센 풍랑으로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심청의 희생으로 모면하는 내용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흥미로운 대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사물놀이 판굿과 버나놀이

판굿 최미순 박재철 김계진 박정원 채종욱 / 태평소 홍봉기

판굿은 걸립패와 남사당패가 연행하던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이다.

전반부에는 여러 가지 진법놀이를 벌이고 후반부에는 상쇠놀이 · 설장구놀이 · 소고놀이와 같은 개인놀음을 진행한다.

긴 상모를 돌리는 열두발 상모와 굿패들이 민요를 합창하는 소리굿과 같은 소리놀이 등이 흥미롭다.

버나 돌리기는 중국인들이 하는 접시돌리기와 비슷하지만, 단순히 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버나잡이와 매호씨가 서로 주고받는 재담과 창에 극적 성격이 담겨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5. 버꾸춤

구성 서한우 / 태평소 김주영

무용 박은애 김해리 이슬 김수희 이현희 김운현 김나라

버꾸춤(서한우)은 전남 해안지역의 농악놀이에서 속해있던 것으로, 큰 중북 버꾸를 손잡이 없이 움켜쥐고 가락을 치고 돌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가락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특징이며 우도 농악의 판굿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 형식의 작품이다.

자진모리, 휘모리, 동살풀이로 현란한 가락위에 호흡과 동작이 얹어져 아름답고, 화려한 동작들로 표현되고 구성되어져, 신명나는 춤을 감상할 수 있다.

6. 술래가 돈다, 진도아리랑

노래 김미옥 신지현 이시원 김민정 박윤희 김경희 전현정

강강술래는 중요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된 노래와 춤, 놀이가 잘 어우러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여성놀이이다.

관현악으로 새롭게 연주되는 '술래가 돈다'는 연무의 흥겨움을 춤추는 듯한 장단과 선율에 실어 소리꾼의 노래로 부른다.

